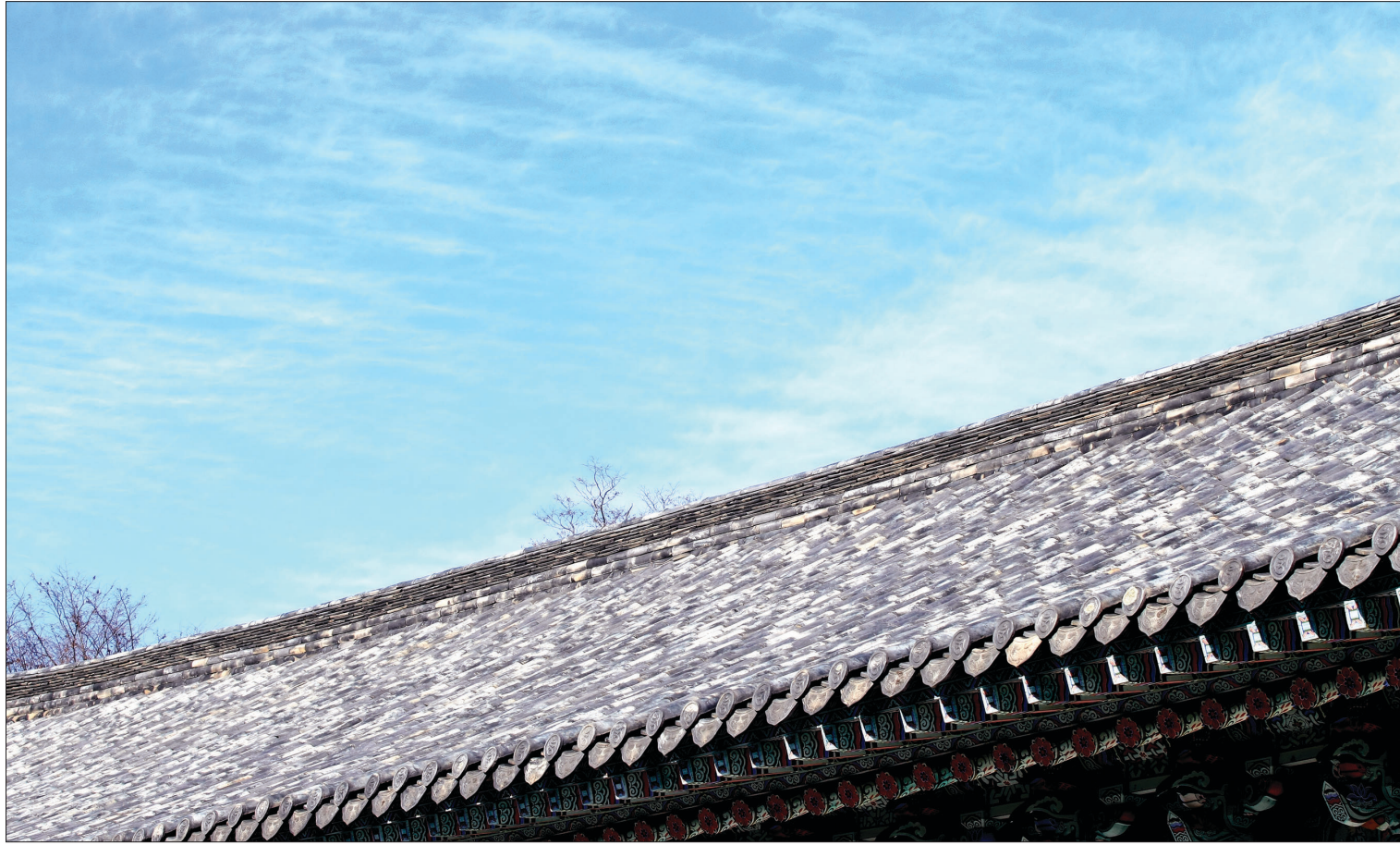


갤러리 색즉시공



사라진 것들 앞에서

저 너머에 있다고 생각하자
그래 저 너머에 있다고 생각하자
사라진 것들과 돌아올 수 없는 것들은 모두

그래도 어쩔 수 없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지나간 날로부터의 유혹은 어쩔 수 없는 것
돌아보고 또 돌아보게 되는 그 미련들

저 너머에 있었다고 생각하자
원래 저 너머에 있었다고 생각하자
돌아보고 또 돌아보게 되는 그 미련들이

그래도 어쩔 수 없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결에서 들려오는 울음소리는 어쩔 수 없는 것
위로할 수 없는 아픔이 있다는 것은

사진 · 글=박재완 기자

티끌 안에도 무한한 우주가 있나니...

Buddha in Comic & Ani

◎ 지미 헤이워드의 '호튼'



지미 헤이워드 감독의 '호튼(2008)' 포스터

"그렇게 작은 것에는 사람이 살 수 없어."
"아니야. 그들이 작은 것이 아닐 수도 있어. 우리
가 너무 큰 것일 수도 있어."

이게 웬 철학적 질문인가. 코끼리와 캥거루가 티끌
속에 세상을 두고 격론을 벌인다. 코끼리는 티끌 속
에 있는 사람의 목소리를 들었다는 말하고, 캥거루
는 보이지도 들리지도 느낄 수도 없는 것은 실재가
아니라고 일축한다.

마치 철학 수업에 상기시키는 이 질문은 2008년
개봉한 미국 애니메이션 '호튼' (Horton Hears A
Who, 지미 헤이워드 감독)의 한 장면이다. 개봉 당

시 미국에서는 4000여 극장에서 개봉해 4500만
불의 수익을 올렸지만, 한국에서는 완전히 실패했
다. 사실, 이 애니메이션의 존재를 아는 사람 자체
가 적다.

그럼에도 이 애니메이션을 주목해봐야 하는 이유
는 작품의 세계관이 불교 사상과 맞닿아 있기 때문
이다. 보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명제로 시작하
는 '호튼'의 줄거리는 대략 이렇다.

큰 덩치에 어울리지 않게 어린 마음을 가진 코끼리
호튼은 머리를 덮을 정도로 큰 귀 때문에 아주 작은
소리까지 들을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 그런 호튼은
어느 날 이상한 소리를 듣는다.

그것은 정글을 떠다니는 먼지보다 티끌 안에 사는
'누군가 마을(Whoville)' 시장의 목소리였던 것. 서
로를 볼 수 없지만, 대화로 상대방의 존재를 확인한
호튼과 시장은 대화를 시작한다. 한 낮이 점점해지
고 여름에 눈이 내리는 것을 목격하고 한 시장은 '누
군가 마을'이 위기에 처했음을 깨닫고, 호튼에게 마
음을 안전한 곳으로 옮겨달라고 부탁한다.

마음 착한 호튼은 '누군가 마을'의 존재를 믿지 않
는 정글 동료들에게 외면을 당하는 설움을 겪으면서
도 "사람은 사람일 뿐"이라며 티끌을 '불산'으로 옮
기기 위해 여정을 떠난다.

물론 훼방꾼들도 등장한다.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다는 명목으로 호튼을 탄압하는 캥거루와 해결사로
등장하는 독수리가 이를 방해한다. 반면 시장 역시
다친 위험을 믿지 않는 천하태평 주민들에게 "하늘
너머에 우리를 도와주는 코끼리가 있다"고 말하다가
왕따를 당한다.

훼방꾼들의 선동에 호튼이 티끌을 빼앗기게 될 순
간, 자신들이 위험에 빠져 있음을 안 티끌 세상의 주
민들의 목소리가 바깥 세상의 동물들에게 들리게 된
다. 모든 진실 안 사람들은 모두 함께 티끌을 안전한
곳으로 옮겨준다.

본래 애니메이션 '호튼'은 닥터 수스(테오도르 수
스 가이젤)의 동화 <호튼, 누군가의 소리를 듣다
(1954)>가 원작이다. 철저히 동화의 스토리 라인
과 담겨 있는 메시지를 잘 살리면서도 슬랩스틱 코미

'티끌 안 세상'을 구하기 위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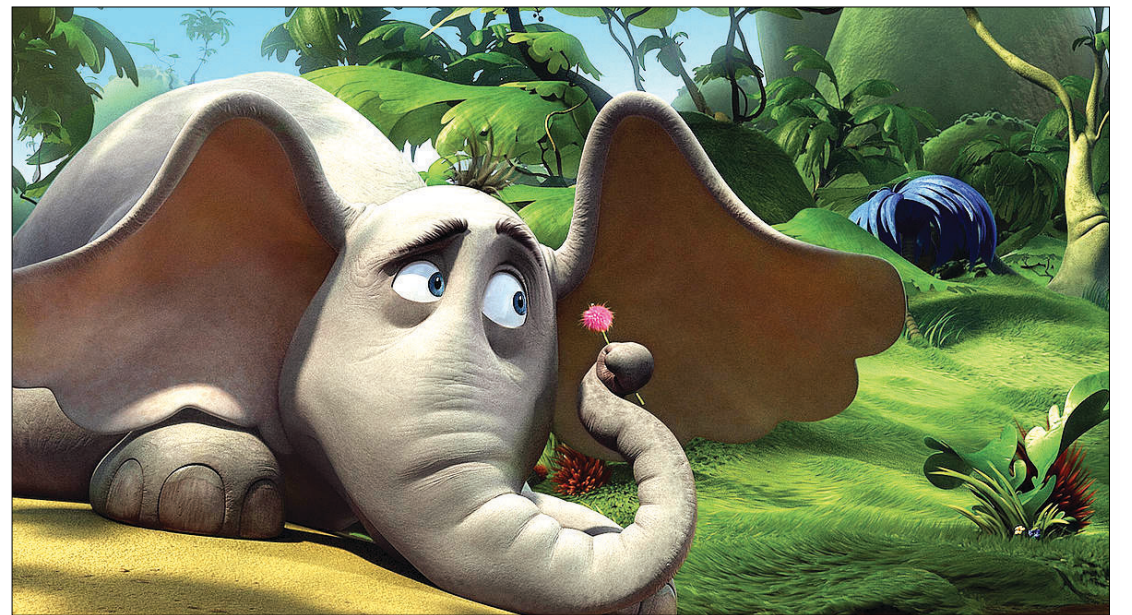
코끼리의 고군분투 여정 그려

'하나가 곧 일체' 화엄사상 맞닿아

디의 요소들을 가미해 오락성까지 더했다. 여기에
넌칠 듯한 컬러와 3D CG기술로 재탄생한 유연한 캐
릭터들의 풍부한 동작들도 눈길을 끈다.

무엇보다 작품이 가지는 백미(白眉)는 '티끌 속의
세상'과 '티끌 밖의 세상'의 소통이다. 큰 귀를 가진
코끼리 호튼은 바람 곁에 날아온 티끌 속 세상의 소
리를 듣는다. 티끌 속 세상에는 이미 문명사회가 이
뤄져 있었다.

단순한 설정만을 놓고 봐도 이는 불교의 화엄사상
의 세계관이다. 당장 <화엄경(華嚴經)>의 뜻을 압축
해 풀어낸 의상대사의 법성계(法性偈)는 '호튼'이 보
여주는 세상을 잘 설명해준다.



'호튼'의 한 장면. 호튼이 코로 감싸고 있는 민들레 씨앗 안에는 '누군가 마을'이 있다. 티끌 속에서 세상과 밖의 세상의 소통이 이 작품의 백미이다.

'一中一切多中 一則一切多則 一 / 一微塵中舍
十方一切塵中亦如是 (하나 안에 일체가 있고 일체
안에 하나 있어, 하나가 곧 일체요, 일체가 곧 하나
나라/ 한 티끌 그 가운데 온 우주를 머금었고, 낱알
의 티끌마다 온 우주가 다 들었네)

이 구절은 "일체가 가지는 사실에는 본질적으로
시간 및 공간의 한정적인 개념이 성립되지 못한다"
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제작진은 <화엄경>을 읽고 공부했기 보다는 '프레
탈', '카오스' 이론과 같은 현대물리학의 개념에서
이 같은 세계관을 차용했을 것이다. 이를 잘 보여주는
것이 작품의 오프닝이다. 3분이라는 긴 시간을 할
애하는 오프닝은 이슬을 맞은 열매가 민들레 씨앗을
뿌리고 티끌을 날려 보내는 장면이 이어진다. 이는

'나비의 날개 짓이 태풍을 일으킬 수 있다'는 현대물
리학의 '나비효과' 개념과 유사하다.

실제 현대물리학에서는 독립적으로 존재한다고
믿었던 크기·시간·속도·에너지와 같은 구체적인
물리량들이 혼자 떼어서는 정의조차 할 수 없다고 보
고 있다. 부분적인 성질이 전체적인 성질을 지배한
다는 프랙탈 이론도 '일즉다 다즉일(一即多 多即一)'
의 화엄사상과 맞닿는다.

우리는 수많은 '경계 짓기'를 통해 서로를 타자화
하면서 살아간다. 작품처럼 티끌 안의 존재를 인지
하지 못하더라도 우리와 맞닿은 존재들은 인정하고
이해하고 소중해야 하는 것이다. '호튼'의 마지막은
모두가 함께 산에 오르는 것으로 끝을 맺는다. 서로
의 존재를 이해하고 인정하는 모습은 따뜻할 수 밖에
없다. 신종일 기자 motp79@hyunbul.com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영산재

범패소리 명상 힐링치유

영산재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인도의 영취산에서 법화경을 설하시는 모습을 재
현한 불교의식으로 시공을 초월하여 본 도량으로 오롯이 옮기고 영산화상의 제불보
살님께 공양을 올리는 의식이다. 그리하여 산자와 죽은자가 부처님의 참 진리를 깨달
아 이고득락의 경지에 이르게 하는데 의의가 있다. <영산재보존회 사회부장 처명>

- 범패는 천년을 이어온 영혼의 소리로 우리나라 삼대 성악곡
(관소리, 가곡, 범패)의 하나임.
■ 범패를 활용한 소리명상 힐링 치유는 인간의 감정과
내면의 세계를 다스리는 이 시대의 정신적 안식처로서의
가장 수승한 수행임.
■ 장 소 : 신촌 봉원사 경내
■ 일 시 : 매주 금요일 저녁 7:00~9:00
■ 수강대상 : (1) 범패소리 명상을 통한 약사여래부처님의 가피로
몸과 마음을 치유 받고자하는 모든 분
(2) 범패소리 명상을 수행하고자 하는 모든 분
(3) 병의 근원인 각종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분

■ 문 의 : ☎ 02)393-8027
지도 : 봉원사 법화정토회 처명(선광)스님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과정
• 중앙승가대 불교학과 졸업
• 동방대, 육천범음대 졸업, 중앙승가대강원 대교과 수료
•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 서울남부구치소 교정위원, 서대문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범패소리명상힐링연구소(소장: 처명)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한인동 요가마을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민속죽염 30년 전통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 좋은 소금'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
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
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
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으로 할 수 있습니다.

- 1.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2.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3.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4. 정혈작용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Table with 4 columns: Product Name, Weight, Price. Includes items like 가루 자색죽염, 알갱이 자색죽염, and 보급형 민속죽염.

구입가 5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됩니다.
* 자색죽염 구매시 사은품 (휴대용 알갱이 자색죽염 10g) 증정. 회원우대

주문 및 상담 : 010-2823-0483
입금 : 농협 150012-56-086122 예금주 : 김용희(민속죽염)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동 54번지 www.msjy.co.kr

국내산 (청도 불광사 사찰 내 재배)

'적하수도 된 장' 판매
'적하수도 고추장' 판매

- 적하수도, 적하수도 된장 필하신분 연락바랍니다.
• 하수도 된장 : 1 kg 5만원 • 하수도 고추장 : 1 kg 5만원
• 하수도 건조분말 판매 개시(kg당)

하수도 된장, 하수도 고추장은 청도 서릉농장에서
직접 재배한 하수오로 만듭니다.



- 1. 우리 몸 최고의 보약인 적하수도 모종을 예약 분양합니다.
2. 모목 재배시 판매가 불안하신 분에 한하여 계약재배 가능합니다.
3.3㎡(1평) 10만원 확정 매입 해 드립니다.

■ 서릉 농장 : 010-8442-4444 (상담)
경북 청도군 풍각면 흑석1리 368 모목 재배
계좌번호 : 농협 302-0332-7864-61 예금주 김남필

인터넷 검색 : 하수오 남서